

7·30 재보선 ‘깜깜이 공천’ 입지자 속탄다

새정치, 광주·전남 4곳 공관위 구성 못해

경선 방법·전략공천 등 정해진 룰도 없어

광주·전남지역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공식 후보 등록일(내달 1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까지 공관위(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선과 전략공천 등을 둘러싼 각종 설익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장, 광주 광산 을과 순천·곡성, 나주·화순 등 시 단위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4개 군으로 구성된 장성·담양·영광·함평 지역구는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4개 재보궐 선거 지역구 가운데 2개 지역구는 전략공천, 2개 지역구는 경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나눠먹기 공천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적 특성상 ‘공천=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내 각 계파 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전략공천과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전남지역 공천을 최대한 늦추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전략공천’을 밀어 붙이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경선이 치러진다 해도 방법이 만만치 않다. 일단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경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판단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 단순 인지도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착신 등 불탈법에 의한 민심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심원제는 시간과 비용, 참여도 등이 걸림돌이다. 당원 경선은 안철수 공동 대표 진영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는 동일 경선이 치명적 약점이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 입지자들은 중앙당의 움직임만 바라보면서 물 밑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광산을 재보궐 선거에 나선 계획인 오 입지자는 “공천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바닥을 다지면서도 불안감

이 크다”며 “중앙당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 확실한 공천 일정과 공천 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관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안철수 공동대표 측에서 아직까지 공관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관위원 구성이 구 민주계가 사실상 8명(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포함)인 반면, 안철수 공동대표 진영은 5명에 불과, 통합 정선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공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하루, 이틀 내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다음달 5일까지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며 “공관위가 구성되는 대로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고 후보 검증에 곧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방선거가 끝나도 세상은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무겁고 음울하기만하다. 문장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후폭풍이 몰아치는가 하면, 유병언 찾기 습바꼭질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시국이 이렇듯 허수상할 때는 차라리 이 풍진 세상의 번다함에서 잠시 벗어나, 무심하게 차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인생을 성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찌피 인생행로에서 여러 번의 실패는 필요하고, 또 월드컵 축구도 보아야 나.

“엄마, 인생이 뭐 줄 아세요?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시는 거 그게 인생이예요.”

미국의 극작가 손튼 와일더가 쓴 ‘우리 읍내’에서 죽은 에밀리아 한 말이다. 손튼 와일더는 이 작품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짧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에밀리아는 재깍재깍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듣는 것, 커피 마시고

과 느긋한 여유와 유혹,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마음속 깊숙이 실패를 짚은 다음, 속도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한다.

내가 특히 드립커피에 맛을 들인 것은 지난 겨울부터였다. 처음 예가치페를 마셨을 때 새콤달달한 맛에 취했고 두 번째 계냐를 마셨을 때는 쌉싸레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반했다.

예가치페는 수채화처럼 상큼했고 계냐는 중후한 유희맛이라고나 할까. 그때 비로소 커피 고유의 잡맛과 시고 쓰고 달고 고소하고 매콤한, 여러 가지의 참으로 요묘한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맛과 흡사했다.

지난 4월에는 커피의 도시 강릉까지 갔다. 한국 바리스타 1호인 박이추(朴利秋·66세)씨가 드립해 주는 블루마운틴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강릉 후미진 곳에 있는 ‘보헤미안’까지 어렵게 찾아갔다. 박 씨는 1988년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카페 ‘보헤미안’을 오픈한 후, 2000년에 오대산을 거쳐 강

이 풍진 세상, 커피 한 잔의 실패

실할 때 커피 마시는 것,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인생은 무겁거나 의미심장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커져야 하는 작은 알갱이와도 같은 의미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기실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조자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면, 짧은 인생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커피를 처음 마신 것은 고2 때 양림동 김현승 시인 댁에서였다. 김 선생님이 손수 끓여서 늦대접에 따라 주신 커피를 막걸리처럼 벌컥벌컥 들이켰다. 선생님은 커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무렵 나는 노벨다방(광주시 총장로 27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시인의 외로운 영혼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 외로움이 가슴 뛰도록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최근에는,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으로 나만의 인생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블랙커피가 주는 쓸쓸한 감미로움

를에 정착했다. 그는 강릉에서 수많은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그 결과 강릉에는 안목해변의 커피 거리를 비롯 300여 개소의 커피 전문점이 생겼다. 해마다 10월이면 커피축제도 열린다. 특히 100인의 바리스타가 100가지의 커피 맛을 내는 ‘100인의 100’을 맛보기 위해 전국에서 30만 명이 몰려온다. 한 사람의 바리스타 힘으로 강릉시가 커피도시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차 한 잔은 인생을 향기롭게 해준다. 문득 송나라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과 함께 그가 즐겼다는 꽃차가 떠오른다. 주돈이의 아내는 연꽃잎이 오므라드는 저녁이면 종이에 차를 써서 연꽃 속에 채워 두었다가, 아침에 꺼내 남편과 함께 마셨다고 한다. 연꽃 속에 하룻밤 재운 차를 아침마다 마시는 부부는 얼마나 여유 있고 향기로운가.

나도 오늘 아침, 늙은 아내가 드립해 준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의 스모키한 향을 맡으며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야기로 외로움을 달랠다. 밥 덜린 노래 ‘월 모어 컵 오브 커피’가 듣고 싶은 아침이다.

<소설가>

이석형 영광·함평·장성·담양

고재경 순천·곡성 보선 출마



이석형 전 군수 고재경 전 보좌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7월30일 치러질 영광·함평·장성·담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전 군수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도 신청했다.

이 전 군수는 “중앙당의 선거 일정에 맞춰 보궐선거를 준비하겠다”며 “중앙당의 방침과 원칙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경 전 국회의원보는 이날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보좌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분열된 지역의 정치를 통합하고,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에 맞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고 전 보좌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의 혁신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더욱 젊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7·30 보궐선거가 정치혁신을 위한 신진의 등용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계호 전 전남도행정부지사도 영광·함평·장성·담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방 동행 전순옥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동행하는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재보선 4곳 후보 경선해야”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 주장

광주 광산을, 순천·곡성 등 모두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위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사무총장이 17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경선의 불가피성을 주장

했다고 다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박지원·박주선·김승남 의원만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전략공천 혼란을 예로 들며 이번에는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문제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 등 다양한 방법이 얘기됐으나 의견이 집중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는 당원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일반 여론조사 50%+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신진 인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

곳에 가면
다들 다들
공감공감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군산시 GUNSAN CITY
관광문의 (063)453-4986
홈페이지 http://tour.gunsan.go.kr